

연중 제12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제1독서: 즈가 12, 10-11; 13, 1

제2독서: 갈라 3, 26-29

복 음: 루가 9, 18-24

순정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루가 9, 24)

강론

물보다 진한 피



김 의 철 신부/원평성당

몇년전 우연히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한국사람이라고 묻고 자기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용사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한국전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뭐니까?” 그러자 그는 서슴없이 한국전은 굉장히 참혹했으며 그해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다고 들려주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악지형과 소총이 손에 짝짝 달라붙는 매서운 추위는 또하나의 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세월이 흘러 살아남은 전우들마저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고 한국전쟁 또한 서서히 잊혀져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애기했다.

6.25동란은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전쟁보다 참예한 이념의 대립과 더불어 국토는 초토화되고 사상자도 가장 많았던 전쟁이었다. 전쟁은 참혹하다. 전쟁이 할퀴고간 상흔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이제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이제는 피난갈 곳도 없고 민족의 공멸만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해서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정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세계적인 추세는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나가면서 이러한 추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있는 실정이며 경제발전을 위해 나진, 선봉지역을 개방하고 있다. 잘 나가던 우리 경

제는 IMF에서 달러를 빌려와 외환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않다.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증가하여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어려울때 서로 도와야하지 않을까? 정권이나 사상, 이념 그 어느것도 민족보다 더 우위일 수 없다. 우리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살수 있는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개혁과 개방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이산가족의 상봉을 실현하고 서신왕래와 상호방문, 경제협력 및 방

송, 체육 그리고 학술, 교류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비록 서로 어렵지만 지금이야말로 민족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동안 공동의 언어와 생활양식을 누려왔던 단일문화민족이다. 은총의 대

회년,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고 나아가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변영된 통일조국을 이루어야 하겠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소명이기도하다. 통일조국이야말로 21세기를 맞는 민족의 진로와 희망을 열어줄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느님께 매달리자.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자.



여 명

소 처 럼

김 인 봉(대건안드레아)

우리는 지난 6. 4 지자제 선거때 1,000여년전 삼국시대가 지금도 진행중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좁디좁은 땅덩어리에 3.8선이 그어져 남북으로 갈라서고 그것도 부족하여 소백산맥으로 동서가 갈라선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두렵기조차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서남북의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져 이땅에 참된 평화가 찾아올까요.

우선 남녘 땅을 동서로 갈라 논 지역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다 아시다시피 정권에 눈이 먼 정상배들이 지피고 부채질하여 온 나라에 도진 지역 감정이 이제는 백악이 무효인 고질병이 되었지요. 얼마나 심각한지 나라 망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방 이후에 사상이나 이념적으로 자유로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국민의 대다수가 종교를 가졌지만 그걸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이 독자적인 후보를 내거나 맘에 드는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 환경 등 시민사회단체도 선거때는 구경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차별화된 목소리와 기반을 갖는 정당과 후보가 있을 수 없고 정책과 정견이라 하는 것도 전부 그제 그거고 인물이나 경력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왕이면 우리 고을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백산맥을 넘나드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정당별·후보별 정책과 정견의 차이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제 남북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소 500마리가 판문점을 통해 북녘으로 넘어간 것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애써 길 끌어 놓으면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고 통일의 일꾼들이 피눈물로 닦아논 판문점 길을 돈 속이 흰한 노인네가 소를 앞세워 넘어 가는 모습이 조금은 언짢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풍요를 나타내는 누런 소가 폐를 지어 넘어가는 모습은 일촉즉발의 긴장과 대립을 녹여 버리고 오래 전에 떠난 고향의 한가로움과 평화로움을 가져오는 듯합니다.

이제 소가 다진 판문점 길로 보통 사람들도 자유로이 오가고 편지도 주고받을 날이 곧 오겠지요. 신문과 텔레비전을 마음놓고 보는 날도 멀지 않겠지요. 남북한의 군인을 대폭 줄이고 탱크와 대포를 녹여서 보습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하여 남은 돈으로 북으로는 굶주리는 형제들에게 따뜻한 밥을 드리고 남으로는 거리를 헤매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이 땅에 참된 평화·화해·일치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제 소가 간 길을 우리가 못 가면 우리는 소보다 못한 민족이 됩니다. 말처럼 앞만 보고 급히 달리다 보면 백두산에 닿기 전에 지칠 수 있으니 소처럼 여기저기 살피면서 천천히 그러나 쉬지 말고 뚜벅뚜벅 가십시오.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길을.



숲정이 산책



“모두 교만해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 뜻대로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다가 돌연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다시 살수 있게 되었다면 그 후의 삶은 얼마나 감사로울까. 오랫동안 애령회장으로 봉사하다가 위암 2기의 진단을 받았으나 다행히 수술이 성공하여 새 삶을 살아가는 전동성당의 최병래(안토니오 · 63세) 형제의 체험을 들었다.



◆ 전동성당에 나가신지 오래되셨지요?

☐ 원래 상관 출신인데 결혼을 하면서 전동으로 교적을 옮겨 지금 37년째 됩니다.

◆ 구교우 집안에서 태어나셨으니 신앙심이 깊으셨겠네요.

☐ 명색은 그렇지만 교리도 깊이 모르고 단지 하느님이 계시다는 믿음만 가지고 사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들이 자라는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뭔가 교회일에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부터 애령회에 가입했는데 그때만 해도 애령회는 거의 60세가 넘는 분들이 많아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젊은 저를 아주 환영해 주셨고 회장직을 맡겨주셨습니다.

◆ 첫 번 입관하실 때의 생각이 나시는지요?

☐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시신이 너무 험하게 부패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염습하는 것을 뒤에 서서 보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이 곳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괜히 시작했구나 하는 후회가 생겼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져먹고 3년 임기만 채우자고 생각했는데 다섯 번이나 재임하여 15년 동안 애령회 봉사를 했습니다.

◆ 자녀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반대했다면서요?

☐ 지금은 출가한 큰딸이 중학교 다닐 때 하루는 학교에 다녀오더니 투정을 해요. 반친구들이 '너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할아버지 묶었다'고 놀린다니면서 창피하니까 그 일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야, 집안에 갑자기 초상이나면 그 집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니? 이웃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무척 기쁘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절대로 나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던 애가 출가해서 아이엄마가 되더니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아듣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아버지처럼 하느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 현재도 애령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15년 임기를 채우고 재임을 권유받았지만 나이가 50이 되었고 건강도 나빠진 것을 느껴 사양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나오는 길에 저와 함께 갔던 동서가 위암2기 진단이 나왔다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작은 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수술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다'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15년이나 봉사했는데 설마 벌써 데려가시겠나 하는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수술전날 입원실에서 한없는 슬픔과 고통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저는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다시 얻은 생명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면 다시 애령 봉사를 해야지요. 제가 예전에 연도를 하면 목소리에 힘이 있고 가락이 좋아서 연령들이 더 빨리 천국에 올라가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그 연도소리를 듣고 싶다는 형제들이 많거든요.



1998년 성령의 해

“왜 희년을 경축합니까?”

대희년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2000년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2000년이 새로운 천년기를 경축하는 잔치를 벌이는 기회라고 여긴다. 그리스도인들도 대희년에 대한 태도가 다양하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이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인간 역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해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를 다른 어느 날,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여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2000년 대희년을 위한 준비기간은 사람들이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켜 신앙을 깊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하게 증언하도록 돕는 시기라는 것을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고 싶다(「제삼천년기」 42항 참조). 더불어 대희년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제삼천년기」의 주제들을 교회생활의 1년 리듬에 짜맞추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 이 기간은 우리의 영(靈)을 새롭게 하고 사목을 강화하며 복음화 영역을 넓히는 기회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소금과 빛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왜 2000년 대희년을 경축

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들어 앞으로 서너 주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대희년 경축의 이유

1. 교황성하께서 대희년을 경축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셨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2000년 대희년을 교회와 세상의 생활에서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2000년의 커다란 도전을 간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하신다. 왜냐하면 “이 도전은 분명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제삼천년기」 55항). 교황께서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보편교회, 개별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함으로써 대희년을 준비하고자 하신다(「제삼천년기」 45항 참조).

- 대희년 맞이 2,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라」를 참조 인용하였습니다. -

기쁘고 은총의 대축제로 2000년 대희년을 맞아 1년 6개월 9일 남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중 제일 많은 것이 식품류의 쓰레기입니다. 식품쓰레기를 줄이고 건강과 환경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 ▶ 농산물, 수산물은 다듬어 읍시다.

야채나 생선등은 가게나 생산지에서 다듬으면 같은 쓰레기가 많이 쌓이므로 가축이나 퇴비원료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랩(비닐)으로 싼 채소, 생선은 주의합시다.

상점에서는 장시간 진열했던 제품을 날짜만 파끼는 경우가 있어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은 건강에도 안좋고 재활용 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많이 생깁니다.

- ▶ 인스턴트 식품을 피합시다.

대부분의 인스턴트 식품에 사용된 용기·포장지등은 재활용이 되지않는 천덕꾸러기입니다. 가급적 음식물을 조리해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주구천동 별장콘도

스위식풍경 40평형 단독별장
방 3, 욕실 2, 거실대형, 주방

장 성 래(레오나르도)

무주리조트 건너편

☎ (0657) 322-1241, 4081

U-대희 기념

전주 빙상 경기장

온가족이 즐겁습니다
연중 일반 영업

단체 : 입장료+스케이팅대여=3,000원

오 재 천(안드레아)

중화산동(어운터널→전북터널사이)

☎ (0652) 227-7472

숲정이 익스프레스 이시점

사다리차·인부대기·포장이사

251-2024

☎ (0652) 246-2024

224-2024

이 한 주(토마)

동전주 주유소

〈품질좋은 쌍용〉

성설, 신용으로 시내 전지역 신속배달
소양, 진안 방면 초입
(우아동 파출소옆)

황연옥(요센)·윤성자(수산나)

☎ (0652) 245-5123, 5134(오일상사)

(후) 016-606-5134

☞ **궁금해요** ++++++

미사를 드릴 때 신자가 읽는 독서 끝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을 하고, 사제가 읽는 복음의 끝에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응답을 하지요. 그런데 반모임에서 사제가 아닌 일반신자들이 복음을 읽었을 때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요?

교회전통에 의하면 부제이상의 성직자가 복음을 읽게 되어있지만, 기도모임이나 개인이 성서를 봉독할 때에는 일반신자들도 복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통 네 개의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를 읽은 다음에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응답을 하고 이 네 개의 복음을 제외한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과 구약성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반모임에서 누구라도 복음을 읽으셨다면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복음서에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응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생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성서 부분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와 같이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므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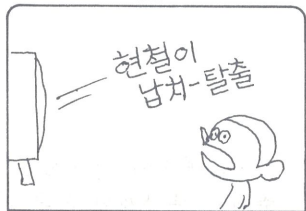
나운동 성당 '새가족 찾기 운동'

군산 나운동성당(주임 김용태 신부)은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새가족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본당의 모든 신자들은 40일 금식기도와 21일 고리기도, 9일기도, 그리고 가두선교로 새가족 찾기 운동을 위해 기도하면서 현재 1,450여명의 예비신자 후보명단을 봉헌했다. 수시로 교육을 통하여 신자들이 새가족을 예비신자 교리반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나운동 성당은 본당 설립일인 6월 28일에는 군산 월명 체육관에서 이번에 찾은 새가족들을 모두 초청하고, 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주례로 기념미사를 거행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다. 1965년부터 주교회의는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여 목자 없는 북한교회를 기억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남북관계는 분단의 갈등과 대립을 점차로 극복해 나가며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가톨릭 기도서 99면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면서 한 형제인 북한 교회와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자.

요십이 (1298) 김병호



경축! 나운동성당 설립 10주년 기념 미사

일시 : 1998. 6. 28(일) 오전 10시
미사주례 : 이병호(빈첸시오) 주교님
장소 : 군산 월명체육관
전야제 : 6. 27(토) 오후 7시
나운동성당 교육관
전주교구 나운동 성당

제일학문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최 성 양(루가)
전 문 의 안 해 선

익산시청←북부시장 사이
☎ (0653) 858-7575, 7585

대한(페인트)인테리어

황토방으로 바꾸세요.

1. 황토방(주택, APT) 신축, 보수공사 전문업체
 2. 아파트공사, 전체 칠, 페인트 공사 전문
- 김익화(요셉), 이영희(세실리아)
☎ (0652) 252-4874, 226-0982~4
012-684-2658, 011-680-4874

편안 눈 밝은 세상—

정읍 한독 안경원

안경사 이 수 엽(필레몬)
박 은 숙(레지나)

우체국 정문앞 이안과 1층
☎ (0681) 538-3333

이(치아)에 관한 모든 것 예원부부치과

에서 상담 및 치료
턱관절 장애 특수 크리닉
코골이, 치아표백, 이갈이
유 영 대(보나벤티라)
이 유 미(에피파니아)
효자동 풍년제과 2층 주공APT옆
☎ 244-2875

알뜰 가구 할인매장

전자제품, 가구, 침대, 소파
생활용품 일체
중고에서 → 신품까지

황 일 수(프란치스코)
김 영 선(글 라 라)
익산 쌍방울 사거리에서←삼계가는길
☎ (0653) 832-8245

사 목 단 상

풍남제에서

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

민속명절인 단오절을 앞두고 열리는 전주 시민 축제인 풍남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소문을 듣고 선교열의에 불타는(?) 바오로 딸들이 나섰다.

축제때 책이나 카세트, 그것도 종교적 색채가 있는 책들을 볼 사람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비신자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경험 삼아 한번 시도해 보자는 생각으로 우리는 신자 분의 도움을 받아 평화동 성당에서 운영하는 음식코너 옆에 자리를 배정 받아 도서전시를 했다.

축제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민속 공연과 상인들의 특이한 호객행위와 더불어 다양한 상품들을 보고 즐기기 위해 종합경기장에 모여들었다. 특히 해질 무렵이면 사람들이 산보겸 외식을 하러 모여들었는데 하루에 20여만명이 몰린다는 지방신문의 보도대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풍남제를 즐기러 모여들었다. 그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구경거리였다.

전시장 앞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했다. 사람들의 옷차림, 머리모양, 걸음걸이, 말할때의 소리와 몸짓 등이 모두 달랐다. 정말이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기성세대로 접어든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우스꽝스런 차림을 한 십대들, 경쾌한 젊은이들, 나이가 지긋하신 아저씨, 아주머니들, 심지어 엄마 아빠 손에 이끌리어 아장아장 걷는 꼬마에 이르기까지 독특하고 고유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찌면 이렇게 서로 다를까. 그렇다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모양을 지녔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 한사람 한사람의 모습이 신기하고 귀해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와! 놀랍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구나. 모두모두 하느님의 작품이구나라고 생각되어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매체를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며 서 있는데 허름한 차림에 어딘지 지쳐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와 이책저책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 청년이 신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나는 얼른 '꿈을 심는 사람'이라는 책을 권해주었다. 그 사람은 수녀와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이 처음인 듯 얼굴을 바로 들지도 못한 채 건네준 책을 받아 들고 여기저기 펼쳐보면서

"죄인이 읽으면 좋은 책인가요?"라고 묻길래 "이 책을 보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라고 말해주었다.

사는 것이 그리 쉬워보이지 않는 그에게 권해준 책은 어려운 환경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해를 끼친 형제들을 용서하고 농촌에 들어가 사는 젊은이의 이야기로 나도 큰 감동을 받은 책이었다. 나는 그 책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랐다. 정말 좋은 책이라는 다짐을 몇 번이나 받고 젊은이는 책을 가져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해주었다. "우리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기운을 내세요."

나는 생활에 시달려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듯한 청년이 그책을 통하여 한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그의 모습이 군중사이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페킹타운 한식 부페

결혼 피로연 · 동잔치

김도한(하상바오로)
김의순(프란치스카)

☎ 254-4006~7
영동병원앞 광주은행 2층

高品格 웨딩

메종프랑세스 개업1주년기념

다이어트 50% Sale

웨딩드레스+턱시도=250,000원부터
기간: 98년 4월 1일~4월 30일

☎ 251-1210, 1211

서울의학과의원

치질 전문 치료

입원하지 않고 수술 치료
무통, 초음파, 레이저

전문의: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 덕진광장 앞

☎ (0652) 75-0550~1

한국장식·지엄사

고급벽지/바닥재/도소매 시공전문

이진우(베드로)
홍준순(카타리나)

☎ (0652) 84-2982, 87-5568
(휴) 011-681-1096

송약사거리→풍남문(태화교무앞)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믿음, 온유, 절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교 소 식

❖전주사회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때 : 6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초등부 신앙학교 연수
· 때 : 6월 24일~26일(금)
· 장소 : 수류야영장

❖중고교사 여름연수
· 때 : 6월 27일(토)~28일(주일)
· 장소 : 수류야영장

❖새사제 연수
· 때 : 6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가톨릭센터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6월 26일(금), 오후 11시
· 장소 : 전동성당

❖선택월모임
· 때 : 6월 27일(토),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센터

❖군산지구 울뜨레아
· 때 : 6월 21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 대야성당

❖예비신학생 하계 연수
· 때 : 7월 18일~20일(2박 3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신청 : 6월 30일까지 교구청 성소국
(0652) 85-0041

❖김혁태 신부 주소
Hyoktae Peter Kim
st. Pius-Kolleg
Dauthendeystra Be 25 81377
München,
Germany (Europe)
Tel:001(2)-49-89-7102
Fax:001(2)-49-89-710287
(8월말까지)
Kath. Pfarramt Hl. Kreuz,
Gietlstra Be 2 81541
München,
Germany (Europe)
Tel:001(2)-49-89-691-3407
Fax:001(2)-49-651-4195
(9월부터)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때 : 6월 30일(화),
· 주제 : 남안에서 쉬기까지는
· 지도 : 김윤섭 신부
· 때 : 7월 2일(목)
· 주제 : 성령이 주시는 기쁨
· 지도 : 박중신 신부
· 때 : 7월 4일(토)~5일(주일)
· 주제 : 주님의 한없는 사랑
· 지도 : 손삼석 신부

관해 드립니다

침묵에 이르는 길

로버트 르웰린/강창현 역/4,500원
소리내어 기도하는 묵주기도의 단계
에서 침묵과 관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책.

너의 빈손을 나에게

카세트/54분/3,000원
영혼의 양식이 될 좋은 말씀과 음악
이 어우러진 묵상테이프. 기도와 묵
상때에 사용할 수 있다.

성 소 모 임

포교 성베네딕도 수녀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동국아파트 106동 104호	(02) 922-9004
동 정 성 모 회 (전주)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금 암 동 성 당 수녀원	(0652) 253-0325
동 정 성 모 회 (이리)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이 리 성 모 병 원	(0653) 841-0714
인 보 성 체 수 도 회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중 노 충 동 본 원	(0652) 84-3231
바 오 로 딸 수 도 회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바 오 로 딸 서 원	(0652) 252-3398
살 레 시 오 여 자 수 도 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정읍연지동성당 수녀원	(0681) 33-2578
예 수 성 심 전 교 수녀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삼 천 동 성 당 수녀원	(0652) 226-3487
부 산 성 베 네 디 도 수녀회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호 성 동 성 당 수녀원	(0652) 244-0094
샬 트 르 성 바 오 로 수녀회	매월 둘째주 오후 2시	이리 창인동성당 수녀원	(0653) 858-4724

기숙생 모집

대상 : 만 25세 이하의 직장 여성
곳 :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31-1
전화기숙사
운영 : 마리아의 전교사 프란치스코
수녀회
문의 : 863-7978, 854-0389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 6월 28일(일) 오후 2시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문의전화 : (02) 3673-2525
대상 : 외방선교를 지망하는 교교생,
대학생, 일반(미혼 남, 녀)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6월 28일(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삼랑진
본원 문의 : (0527) 52-4241
성령세미나를 참여한 분들로서 더
욱 성장된 성령안의 생활을 갈망하
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중·고생캠프 신청안내

장소 : 광주 젊음의 집
날짜 : 98. 7. 23~8. 8
(전 5차, 일요일 제외)
문의 : (062) 373-8711~2

위니아 에어컨

18%~10% 할인 무이자 6개월
김치생강고 위니아담채
공기청정기, 제습기
위니아 정음점(대진신협 사거리)
☎ (0681) 535-5510, 080-500-0200
(0652) 224-7080
번 호 석(루도비코)
박 유 덕(루 시 아)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희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 경 환(파비아노)
약사 범 순 복(안 나)
익산시 영동동 천주교회 옆
☎ 한의원 (0653) 52-4666
약 국 (0653) 841-7217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의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젠(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하삼바오로)
Tel. 225-5252, Fax 223-5332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너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택

◎ 민족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모임: ① 율트레야 - 교중미사 후
② 동그라미 불림회 - 22일(월) 후 8시
③ 성심부녀회 - 24일(수) 전 10시
④ 성령기도회 - 25일(목) 후 8시
⑤ 전례부, 홍보부, 테니스회, 청년회 - 28일(주일)
- 성전기금 마련 헌금: 오늘 2차헌금 있음
- 헌금의 날: 오늘 사랑의 다리,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임
- 바둑대회: 후 1시 30분, 양지중학교에서 친목모임 있음.
- 참회예절: 25일(수) 저녁미사중
- 병자 방문: 26일(금) 후 2시, 진달래마을, 미사 - 후 4시 30분
- 예비신자 교리: 매주 주일 전 9시 30분, 수요일 후 8시
- 제단체 가입: 레지오 및 본당 제단체에 가입요망.
- 학생 미사봉헌: 초중고생 자녀들 교리 및 미사에 관심바람.
- 수집안내: 어린이 미사책, 중고생 성가책, 레지오교본 중고책자
- 글로리아 성가대 आयु: 28일(주일) 성수산 휴양림
- 금주 전례: 해설 - 이점열, 독서 - 박성규(프란치스코) 부부 봉헌 - 김복남(베드로) 가정
- 차주 전례: 해설 - 김 철, 독서 - 박삼자(아오스당) 부부 봉헌 - 정형석(시메온)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665,320원 □ 교무금: 1,688,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택
F A X 74-9260 수 너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준용

◎ 예비신자 배가운동에 우리모두 적극 참여합시다!

- * 환영식 - 7월 5일(일) 공식미사중, 임교신청서 사무실에 접수
 - * 구역기도회 - 14일(일)~7월 4일(토) 매 미사시
 - * 가두선교 - 오늘(21일) 12시, 많은 참여바람
- 오늘: 애령회 2차헌금, 교무금 납부일(미신림자 신림바람)
 - 금주 모임: ① 꾸리아 - 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교육관
② M.E모임 - 후 8시, 교육관
 - 주간 모임: ① 그린천년불림회 - 22일(월) 후 7시, 1회의실
② 엠마우스회 - 24일(수) 후 7시, 1회의실
 - 차주 모임: 애령회, 방주회, 청년공동체 모임
* 차주 - 교황주일 2차헌금
 - 유아 세례: 25일(목) 후 7시 30분, 23일(화)까지 사무실에 신청
 - 초등부 교사 연수: 24일(수)~26일(금), 수류 청소년 야영장
 - 중고등부 교사 연수: 27일(토)~28일(일), 수류 청소년 야영장
 - 전입가정 환영!: ① 김영옥(아벨라) T. 75-2426, 광진A 103/1406
② 한재월(마리아마달레나) T. 75-8199, 비사벌A 101/404
③ 이인호(요한) T. 251-7603, 선수촌A 102/902
 - 부지헌금 2차신림 감사!: 김종태 5만, 한연길 5만, 누계 - 596만원
 - 독서: 금주(새벽) - 한병훈, 손화배, 차주 - 최병래, 송순자(공식) - 이종명, 최규관, 차주 - 이현일, 김은숙
 - 미사 안내: 금주 - 원적없으신 모후Pr., 차주 - 영원한 도움의 모후Pr.
 - 주차 안내: 금주 - 화해의 모후Pr., 차주 - 다윗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2,138,250원 □ 교무금: 1,532,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너 원 81-0441 사목회장 최 공업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아들이소서

- 모임: ① 성모회 창단 - 24일(수) 미사 후
② 대견회 창단 - 25일(목) 저녁미사 후
③ 성심회 창단 - 25일(목) 전 10시
④ 꾸리아, 요셉회, 사라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⑤ 장고(풍물)강습 - 매주 일요일 후 3시 30분, 누구나
⑥ 전례자 모임 - 23일(화) 저녁미사 후
- 특강: 다음주일 공식미사중, 하원명(파스칼) 형제님
- 북한동포를 위한 모금에 정성을 다 합시다.
- 가족사진 1장씩 사무실에 가져다 주십시오.
-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정술금호APT, 안행현APT
전입가정: 박진석(요셉), 민병환(안드레아), 조세열(파비아노), 최홍규(베드로), 조연화(글라라), 위인숙(마리아)
- 찾습니다: 꽃꽃이 봉사자, 성가반주자
- 중고등부 공개 셀: 다음주일(28일) 9시미사 후
-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사목회 임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로 임명된 사목회 임원 수고해 주십시오.
- 차주 전례: 해설 - 심영배, 독서 - 하진호, 이현주
- 청소봉사: 1, 2구역과 6구역

□ 지난주 봉헌금: 1,116,600원 □ 교무금: 676,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우
F A X 221-9842 수 너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호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아들이소서.

◎ 성전신축헌금 신림금을 6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 모임: ① 예비신자 환영식 - 낮미사중
② 상지원봉사, 제대회, 양업회 등반대회 - 낮미사 후
③ 전례자 회의 - 저녁미사 후 * 음반보급 - 대구교구 원평, 신평동 성당(구미), 광주교구 용당동 성당(목포)
- 예비신자 교리: 23일(화), 24일(수) 후 8시
- 성가연습: 23일(화) 후 8시
- 구역(반)장 회의: 24일(수), 후 7시 30분
- 초등부 교사 하계연수: 24일(수)~26일(금), 수류 청소년 야영장
- 차주 모임: ① 성모회 - 낮미사 후 ② 교황주일 2차헌금 있음
* 음반보급 활동 - 대구교구 평화동 성당(김천)
- 구역미사: ① 26일(금) - 한양온남 ② 7월 10일(금) - 신일
- 청소 봉사: 27일(토) - 신비로운 장미Pr.
- 페품 정리: 27일(토) - 은총의 중계자Pr.
- 화단정리: 27일(토) - 하늘의 문Pr.
- 금주 전례: 새벽 - 유희정, 낮 - 홍정의, 저녁 - 정인자
- 차주 전례: 새벽 - 곽순옥, 낮 - 이영순, 저녁 - 이영숙
* 폐지수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 코끼리 저금통을 오늘까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965,220원 □ 교무금: 1,745,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4,950,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현
수 너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건

◎ 올해는 본당이 정한 「선교 실천의 해」: ① 예비신자 인도 1인

- ② 쉬는교우 회두 1인 ③ 거주불명교우 확인 및 관리 1인
- ④ 이웃돕기 실천 등 선교활동에 최선을 다합시다.

- 금주 모임: ① 율트레야 - 21일(일) 후 8시
② 꾸리아 - 24일(수) 전 10시
③ 꼬미시움 - 27일(토) 후 3시
- 차주 모임: ① 전례해설단 모임 - 28일(일) 공식미사 후
② 구역봉사자 모임 - 7월 1일(수) 전 10시 30분
③ 사목회 - 7월 3일(금) 후 8시
④ 성모기사회 - 7월 4일(토) 전 10시
- 성서교리교실: 매주 화 오전반(11시~12시), 저녁반(8시~9시)
*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초등부 신앙학교 연수: 24일(수)~26일(금), 수류
- 중고교사 여름 연수: 27일(토)~28일(일), 수류
- 유아 세례: 27일(토) 후 4시
- 전입가정 환영: 설순교(마르타) - 효자동 1가 205-106
-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황계A 구역
- 이웃사랑 기금: 7일부터 14일까지 527,000원
- 본당을 깨끗이 합시다: 각 레지오별 청소담당구역이 게시판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쾌적한 본당을 만듭시다.

□ 지난주 봉헌금: 1,441,860원 □ 교무금: 1,877,00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구
보좌신부 226-0443 수 너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근

◎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누계 - 881,990단

- 금주 모임: ① 구역(반)장 기도회 준비모임 - 26일(금) 10시미사 후
② 본당 M.E 6월모임 - 26일(금) 후 8시 30분, 만남의 방
- 견진성사(7월 4일): 견진받을 신자분은 차주까지 신청바람.
- 심체조배: 매주 금요일 전 10시 30분~후 7시
- 저장용 마늘(7월중), 멸치, 젓갈을 판매합니다.
- 미납된 신축헌금과 식권대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1,550,000원(5세대)
- 축! 혼배: 오늘 12시 30분, 본당
신랑 - 김민찬(파비아노), 신부 - 박금남(골로되다)
- 차주: 교황주일 - 2차헌금 실시
사목회, 승리의 여왕Cu., 요셉회, 여성분과회, 우전신협 임시 총회 - 공식미사 후, 소성당
- 금주 전례: 해설 - 박혜숙, 독서 - 변효석, 박윤택
봉헌 - 최규화, 이준순 부부
- 차주 전례: 해설 - 김용민, 독서 - 김영길, 오순자
봉헌 - 황근용, 이후동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103,500원 □ 교무금: 2,676,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전달합시다!”